

임상중심 실무능력향상 교육모델(FO-CUP)의 융합적 효과성 연구: H대학 작업치료실습을 중심으로

김금숙

혜전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

The Effects of Field-Oriented Capacity Upgrade Model(FO-CUP): H University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Keum-Soo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작업치료의 임상중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모델인 Field Oriented Capacity Upgrade Program을 제안하였다. 제시한 교육모델과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방식을 비교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제시한 모델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대조 집단으로 나누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은 3학기에 걸쳐 교육에 참여한 총1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하였다. 제시한 학습방식을 적용하여 교육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각각 22%, 18%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번 연구는 작업치료 임상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제안하였고, 다양한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기초 자료로 의미가 있겠다.

주제어 : 임상 중심 실무능력 향상 모델, 자기주도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작업치료, 실무능력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Field Oriented Capacity Upgrade Program, an educational model for improving clinical practice of occupational therapy.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students was compared by comparing the proposed educational model with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The research method was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model education and the contro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lecture class, and conducted similar experimental studies using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In addition, the study participants conducted a preliminary and follow-up survey of a total of 135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over three semesters. As a result of training using the proposed learning method, the experimental group improve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by 22% and 18%,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developed and proposed a new teaching-learning method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of occupational therapy, and it is meaningful as a basic data of teaching-learning method to improve the ability required in various jobs.

Key Words : FO-CUP,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Occupational therapy, Executive ability

*Corresponding Author : Keum-Sook Kim(ksot@hj.ac.kr)

Received January 18,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February 3,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교수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교육에 있어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어떤 수업방식이 학생의 학업성취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하는 교수법 요인들이 주된 관심영역이 되어 왔다[1]. 이에 다양한 교수법에 따른 학업 성취 향상을 확인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2].

작업치료 교육의 목표가 근거에 기반한 지식과 임상 실무능력이 뛰어난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면 전통적 강의식 교육 방법만으로는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치료관련 지식을 통합, 응용할 수 있는 실천적 작업치료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3]. 또한, 작업치료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작업치료 의뢰를 시작으로 평가와 중재 및 퇴원계획에 따르는 일련의 작업치료 과정과 관련된 총체적인 일들을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직무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방식으로는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작업치료사로 양성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4].

작업치료와 유사하게 환자를 중심으로 한 임상 현장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직종인 의학 및 간호, 치위생 등의 교육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수학습법의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특히, 많이 연구된 부분은 문제 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교수법과 팀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 교수법 등으로 이 교수법들은 전통적 교육방법과 달리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수업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는 수업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5-19]. 연구 결과 학생들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한 수업방식이 전통적 교육방식보다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14,1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육대학 및 치위생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졌으며 작업치료 교육에서의 연구는 박소연[4]과 김석범, 이한석, 채수경[20], 고유정[21]의 연구에 그쳐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효과성이 입증된 많은 교수학습방법 또한 직무 관련 임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가상 혹은 실제의 사례(case)를 바탕으로 한 그룹 수업접근으로 학생들에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한계점

이 있다.

작업치료 분야에서도 임상실무의 복잡성과 급속한 의료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치료사 스스로의 문제해결, 임상적 추론, 실무의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게 교육해야함을 강조하며[4]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육 교과과정의 변화는 물론 교수-학습 전략에서도 혁신적인 학습방식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본 연구는 대학의 중요한 교육 목표인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작업치료 직무의 핵심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학습방법 개발하였다.

작업치료 교육의 새로운 시도로 학교 교육에서 교수의 지도하에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중심 실무능력 향상 교육모델(Field Oriented Capacity Upgrade Program, 이하 FO-CUP)을 소개하고 FO-CUP 학습 방식과 전통적 강의식 학습방식을 비교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실제 내담자 대상 FO-CUP 수업운영을 소개한다.

나. FO-CUP 수업운영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다. FO-CUP 수업운영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1.1 임상중심 실무능력향상 교육모델(FO-CUP)의 개념적 기틀

FO-CUP은 작업치료 직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무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선별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중심 실무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교육운영 모델이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전공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FO-CUP의 운영체계는 Fig. 1과 같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작업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과 협력하여 내담자가 FO-CUP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교수자의 지도아래 수업 중 작업치료 실무를 직접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FO-CUP 수업은 이론 강의, 실무적용, conference, 개별 및 그룹별 coaching 수업으로 진행되며, 정규 교과 시간 외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자기주

도 학습 및 산업체 인사 평가, 실무능력 모의 훈련 혹은 특강과 연계되어 있다. 이 과정을 진행한 학생들은 학습의 과정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자신의 학습을 보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FO-CUP의 마지막

과정으로 사례보고서 및 동영상 자료 등 결과물을 가지고 관련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 및 내담자, 재학생을 초대하여 사례발표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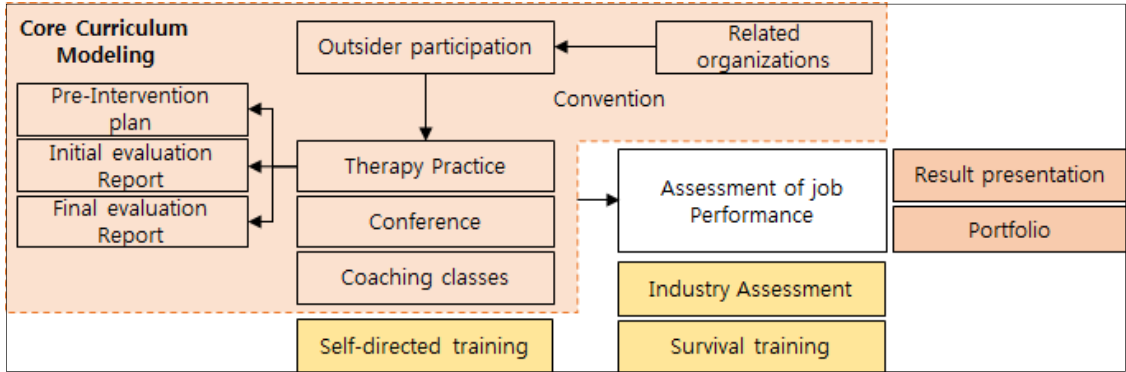


Fig. 1. Operating System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연구 설계는 Fig. 2와 같다. FO-CUP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하는 실험군과 전통적 학습에 참여하여 학습하는 대조군간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비교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 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 3학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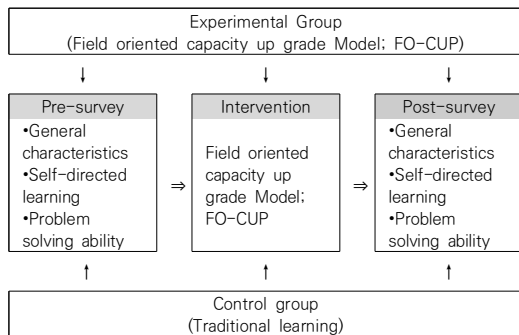


Fig. 2. Research design

2.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실무능력 향상이 목표인 실습 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되 FO-CUP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군과 전통적 강의식 방식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대상자군은 선정해야하는 어려움 있어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2개 학과에서 수업 중 실습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집단과 FO-CUP을 진행하는 2학년, 3학년 집단을 편의 표집 하여 실험 군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Group	n(%)	Male, n(%)
		Female, n(%)
Exp.	74(54.8)	27(36.5)
		47(63.5)
Cont.	61(45.2)	39(63.9)
		22(36.1)

2.3 연구도구

2.3.1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Self-directed learning)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이민영[22]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영역(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행동적 특성) 7개 하위 요인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 요인은 학습과정 관리, 학습결과평가,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 이용관리, 학습 환경 조성이다. 점수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로 가능한 점수는 36점부터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22]. 도구에 대한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835~.93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3.2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 Ability)

문제해결 능력 측정은 한국교육개발원[23]에서 개발된 생애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 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인식(5문항), 정보수집(5문항), 분석능력(5문항), 확산적 사고(5문항), 의사결정(5문항), 기획력(5문항), 실행과 모험 감수(5문항), 피드백(5문항)과 같은 9개 하위영역의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드물게 한다' 1점, '매우 자주한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5점부터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23]. 도구에 대한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691~.929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X^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FO-CUP 수업이 실험 군과 대조군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및 대응표본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coefficient와 유의수준 p값은 .05이다.

3. 연구결과

3.1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효과

실험 군과 대조군의 학습 전과 후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비교한 결과 Table2와 같이 대조군 보다 실험군의 향상율이 22.8%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Table 2. Improvement of Exp. and Cont. group

Group	Pretest	Posttest	Improvement
Exp.	3.3±0.57	4.3±0.60	29.1%
Cont.	3.6±0.67	3.8±0.62	6.3%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요소별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7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사후에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 향상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Fig. 3과 같이 실험군은 0.80~1.12(평균0.96), 대조군은 0.07~0.38(평균 0.23)

로 평균 0.73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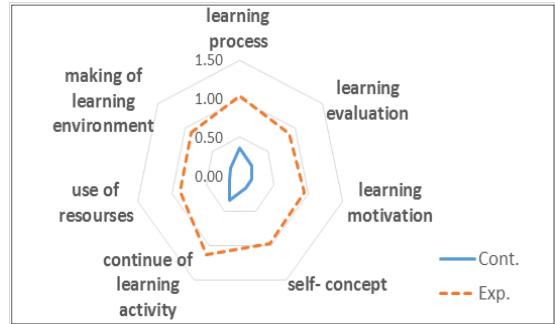


Fig. 3. Self-Directed Learning Improvement Rate

3.2 문제해결능력의 효과

실험 군과 대조군의 학습 전과 후의 문제해결능력을 비교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대조군 보다 실험군의 향상율이 18.3%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Table 3. Improvement of two group

Group	Pretest	Posttest	Improvement
Exp.	3.2±0.71	4.1±0.48	28.4%
Cont.	3.3±0.46	3.6±0.56	10.1%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별 분석결과 Table 5와 같이 9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사후의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 향상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Fig. 4와 같이 실험군은 0.72~1.07(평균0.90), 대조군은 0.2~0.47(평균 0.33)로 평균 0.57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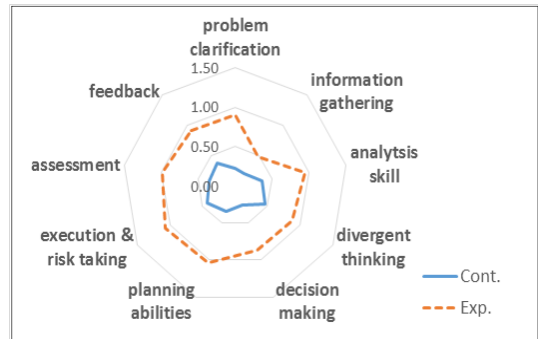


Fig. 4. Problem Solving Ability Improvement Rate

Table 4. Comparison of Self-Directed Learning between two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p)
		M±SD	M±SD	M±SD	
learning process	Exp.	3.2±0.71	4.2±0.62	1.0±0.78	5.23***
	Cont.	3.6±0.73	3.9±0.68	0.4±0.71	
learning evaluation	Exp.	3.4±0.72	4.3±0.65	0.9±0.82	4.99***
	Cont.	3.7±0.78	3.9±0.70	0.2±0.70	
learning motivation	Exp.	3.7±0.72	4.3±0.69	0.9±0.85	5.43***
	Cont.	3.3±0.73	3.9±0.64	0.2±0.75	
self- concept	Exp.	3.6±0.69	4.2±0.70	1.0±0.72	6.50***
	Cont.	3.3±0.74	3.8±0.67	0.2±0.67	
continue of learning activity	Exp.	3.0±0.74	4.2±0.73	1.1±0.81	5.61***
	Cont.	3.4±0.73	3.7±0.74	0.3±0.77	
use of resources	Exp.	3.4±0.74	4.3±0.60	0.9±0.85	5.21***
	Cont.	3.7±0.79	3.8±0.66	0.2±0.73	
making of learning environment	Exp.	3.5±0.80	4.4±0.66	0.9±1.03	4.64***
	Cont.	3.8±0.75	3.9±0.70	0.2±0.68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Comparison of Problem- Solving Ability between two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p)
		M±SD	M±SD	M±SD	
problem clarification	Exp.	3.2±0.66	4.2±0.78	0.9±0.90	3.05**
	Cont.	3.4±0.74	3.7±0.62	0.2±0.74	
information gathering	Exp.	3.4±0.60	3.8±0.96	0.4±1.05	4.73***
	Cont.	3.3±0.47	3.5±0.61	0.5±0.64	
analysis skill	Exp.	3.2±0.66	4.1±0.79	0.9±0.90	1.87
	Cont.	3.3±0.56	3.7±0.66	0.4±0.67	
divergent thinking	Exp.	3.0±0.59	3.9±0.85	0.7±0.93	4.17***
	Cont.	3.1±0.59	3.5±0.59	0.1±0.78	
decision making	Exp.	3.4±0.62	4.2±0.76	0.9±0.88	3.99***
	Cont.	3.5±0.64	3.8±0.66	0.3±0.65	
planning abilities	Exp.	3.1±0.61	4.2±0.75	1.0±0.92	4.42***
	Cont.	3.4±0.52	3.7±0.67	0.3±0.68	
execution & risk taking	Exp.	2.9±0.66	4.0±0.83	1.1±0.90	4.93***
	Cont.	3.1±0.61	3.6±0.57	0.4±0.69	
assessment	Exp.	3.1±0.59	4.1±0.74	1.0±0.95	4.55***
	Cont.	3.3±0.57	3.7±0.59	0.4±0.70	
feedback	Exp.	3.2±0.70	4.1±0.79	0.9±1.01	4.34***
	Cont.	3.3±0.57	3.7±0.64	0.4±0.71	

* $p < .05$, ** $p < .01$, *** $p < .001$

4. 논의

강의식 전통적 학습이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기에 용이하고 여건상 대부분의 대학교육 및 작업치료 교육 과정의 수업들이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식 교수학습법만으로는 작업치료 임

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직무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직업치료사로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여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즉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작업치료 교육과정에

서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실전 수업을 적용한 임상실무능력 향상교육 모델(FO-CUP)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시도한 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작업치료 교육과정 내 임상실무능력 향상 교육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임상 중심 실무능력향상 교육모델(FO-CUP)을 적용한 실험 군과 강의식 학습방법을 적용한 대조군 모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더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임상중심 실무능력 향상 교육모델(FO-CUP)을 적용한 집단이 강의식 학습 방법을 적용한 학습자 군 보다 그 향상도가 자기주도 학습능력 22.8%와 문제해결능력 18.3%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생중심 교육들에서 확인한 결과처럼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과 연결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작업치료 임상에서는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작업치료사를 요구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 의학, 간호, 치위생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이 연구되어졌지만 작업치료 교육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4,20,21]. 특히, 김경미, 장기연, 이향숙, 장문영의 연구에서 학교에서의 직무중심 교육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2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교육목표가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현장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능력 향상이 목표인 직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모델을 제안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한 것에서 의미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임상중심 실무능력향상 교육모델(FO-CUP)을 제안하였고, 제안한 교육모델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과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 간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이다.

FO-CUP을 적용한 실험 군과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대조군 모두에서 각각 자기주도 학습능력 29.1%와 6.3%, 문제해결능력 28.4%와 10.1% 향상되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FO-CUP을 적용한 실험군

의 향상도가 18~22.8%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건의료 직무의 중요한 능력을 임상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강의식 학습방법의 한계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문제 중심 학습법, 팀 기반 학습법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임상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요한 핵심역량인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현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현실감 있게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FO-CUP의 모델을 개발하고 시도하였으며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나 작업치료 직무를 국한 적으로 연구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어 향후 다양한 직무의 특성에 맞는 FO-CUP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 J. Hong. (2002). *The effects of a cooperative learning program on elementary 4th graders' social studies achievement and learning strategy us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 J. H. Seo. (2012). *Impact of Team Based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Seonam University, Chonnam.
- [3] F. Greenwood. (2000). Critique of the graduate nurs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9(5), 231-233.
- [4] S. Y. Park & E. Y. Yoo. (2002). The Use of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 by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0(2), 99-108.
- [5] S. H. Lee, M. H. Kim & K. S. Sun. (2007). The Clinical Competence and Related and Related Factors of the Nursing Students: Focused on the Subjects Who Studied Problem-Based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9(5), 753-762.
- [6] Y. J. Son, E. Y. Choi & Y. A. Song. Effects of a Problem-Based Learning Program on Health Education for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2), 207-216.

- [7] W. S. Lee, K. C. Cho, S. H. Sun, Y. S. Roh & G. Y. Lee. (2009).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Combined with Simulation on the Basic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1), 64-72.
- [8] H. J. Choi. (2004). The Effects of PBL(Problem-Based Learning) on the Metacognitio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712-721.
- [9] B. M. Yalcin, T. F. Karahan, D. Karadenizli & E. M. Sahin. (2006). Short-term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curriculum on students self-directed skills development. *Croatian Medical Journal*, 47(3), 494-8.
- [10] M. E. Rahman, S. Rahman & A. K. Musa. (2004). Knowledge and attitude of clinical students on problem-based learning. *Mymensingh Medical Journal*, 13(2), 125-9.
- [11] R. Tayyeb. (2013). Effectiveness of problem based learning as an instructional of tool for acquisition of content knowledge and promotion of critical thinking among medical students. *Journal of the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Pakistan*, 23(1), 42-6.
- [12] E. S. Park. (2010). Applying Team Based Learning in College Course for Enhancing Team Communication.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7, 171-199.
- [13] Y. M. Lee. (2006). A Correlational Study of Social Familiarity and Learners'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in Web-based Team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10(3), 307-314.
- [14] A. R. Cho. (2008). Tips for Effective Team-Based Learning Administration in Med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4), 373-374.
- [15] H. J. Cho & Y. M. Lee. (2008). Investigating Conceptual Framework on Team-Based Learning for Improving Learning Process and Performance. *The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6(2), 27-42.
- [16] S. J. Chae & M. Y. Hwang. (2009).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eer assessment results and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a team based learning objected o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9(3), 536-544.
- [17] M. C. Clark, H. T. Nguyen, C. Bray & R. E. Levine. (2008). Team-Based Learning in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7(3), 111-117.
- [18] D. W. Johnson, R. T. Johnson & K. A. Smith. (1998). Cooperative learning returns to college: What evidence is there that is works? *Change*, 30(4), 26-35.
- [19] E. H. No & K. I. Min. (2002). *Teaching · learning methodology: for Practic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Dongmunsa, Seoul.
- [20] S. B. Kim, H. S. Lee & S. G. Chae. (200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on the Simulation-Problem Based Learning (S-PBL) Curriculum.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6(3), 23-38.
- [21] Y. J. Ko. (2013). The application of the problem based learning on the clinical scenario.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3(5), 77-80.
- [22] M. Y. Lee. (2010).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Organization Readiness in HRD Compani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 of Their Employe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ployee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ha University, Incheon.
- [23] S. J. Lee.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24] S. J. Park. (2014).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the Learning Attitud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Infant C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angju.
- [25] K. M. Kim, K. Y. Chang, H. S. Lee, M. Y. Chang, H. Kim & E. K. Hong. (2017).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Clinical Practice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5(4), 87-100.

김 금 속(Keum-Sook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작업치료전공)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문학석사)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의학과 박사 수료
- 2001년 3월 ~ 2009년 1월 : 서울재활병원, 서울 e병원, 원광아동발달연구소 작업치료사
- 2009년 3월 ~2013년 2월 : 전남과학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
- 관심분야: 작업치료학, 신경과학, 인지재활
- E-Mail: ksot@hj.ac.kr